

● '한·중 전력기술 컨퍼런스 2013' 개최

- 한·중 양국 간 전력기술 전문가 한자리에
-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기술 정보 교류

한·중 양국 간 전력기술 분야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오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중국 전력기업연합회(이사장 Liu Zhenya)와 공동으로 '한·중 전력기술 컨퍼런스 201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국 전력산업계 주요인사와 전력산업계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기술에 관한 주제발표와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주제발표는 우리 측에서 ▲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 윤용범 한전 전력연구원 처장이 '한국의 대규모 전력 계통에 적용되는 대용량 전력저장 시스템'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국 측에서는 ▲ Zhang Dongxia 국가전망공사 산하 전력과학연구원(Chin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부소장이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Smart Grid in China'에 대해 ▲ Xu Guosheng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China Power Investment Corporation) 부국장이 'Achieve Low Carbon and Clean Development to Build a Beautiful China'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게 된다.

한편, 전기협회는 연례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전력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문의 : 전기협회 KEPIC처(02-6328-7673)



● 2013 PGI·NPI·Renewable Energy World 참관단 모집

- 10월 15일까지 참가자 접수... 발전소 견학, 무역상담 등 혜택 제공
- 1,400여개 전시부스 운영 및 200편 이상 기술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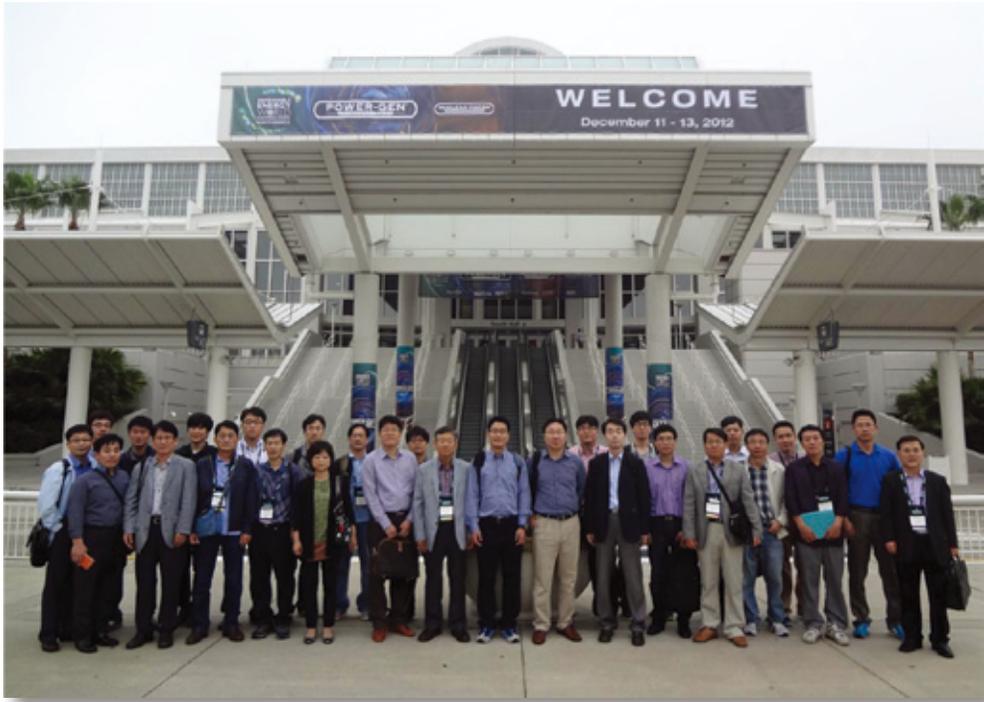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1월 10~14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2013 국제 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시회(Power-Gen International·Nuclear Power International·Renewable Energy World)'에 참가할 대한민국 참관단을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매년 말 미국에서 열리는 PGI·NPI·Renewable Energy World는 1,400여개의 전시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전력산업 전시회 중 하나로 전 세계 75개국 이상에서 21,000여 명이 참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200편 이상의 기술발표와 분야별 세미나도 진행된다.

특히, 전기협회 주관하에 참가자들에게는 특별히 마련된 발전소 견학, 통역, 무역상담, 사업파트너 알선, 비즈니스센터 사용, 문화체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 문의 : 전기협회 KEPIC처(02-6328-6109)



● 제209차 전기저널 편수위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5일 협회 본관 회의실에서 '제209차 전기저널 편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12월호 특집 및 11·12월호 스페셜 이슈 과제 등을 심의, 선정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계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전기협회, KEPIC 환경기술 세미나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31일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충남 당진시 소재)에서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환경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경규제 동향, 환경기술 표준과 관련한 기술, 정보 등의 제공과 함께 현장 기술자들 간의 폭넓은 교류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발전부문은 선제적인 환경설비 도입 등을 통해 환경보존 의무에 충실했으나 적절한 환경기술 표준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요 발표 주제는 ▲수도권 대기 중장기 전략(특강) ▲당진화력 환경설비 및 9,10호기 건설현황 ▲막을 이용한 순수제조설비 소개 및 적용현황 ▲국내개발 10MW CO2포집 파일럿 플랜트 설치 및 운용 ▲탈황·탈질·집진 분야 KEPIC 현황과 적용 ▲탈질설비 성능저하 원인 및 대책 ▲저급탄 사용의 환경설비 영향 ▲발전소 인근 지역 환경소음 영향 평가 등이다.



● 전력신기술 심사위원회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6일 ▲‘전력시설물 기초에 대한 복합말뚝(HCP)의 설계, 제작 및 시공방법<(주)파일테크·두산중공업·(주)한맥기술·(주)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신청기술을 살펴보면, 지반 및 하중 조건에 따라 재질과 단면이 다른 복합말뚝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여 수평력과 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말뚝의 상부는 강관말뚝으로 구성하고 압축력이 주로 작용하는 말뚝 하부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으로 조합하는 설계기법이다. 또한 현장에서 각각의 말뚝 심도에 따라 말뚝을 조합할 수 있도록 시험타, 모니터링, 지지층 분석, 자재조합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맞춤 말뚝으로 제작 및 시공하는 복합말뚝(HCP) 시공법이다.

한편,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1995년 전력기술관리법이 입법화되면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인증제도이며, 전기협회가 1997년부터 인증을 위한 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